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제금융학과	이름	조XX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외레브로
파견대학	O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학기 (1년)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대학은 알란다 국제공항에서 내려 고속버스로 약 2시간 반이 소요되는 외레브로주에 위치해있습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에서는 대략 기차로, 1번~2번정도 갈아타면 2시간 여가 소요됩니다. 외레브로 센트럴 역에 도착하면, 2,3,9번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으며, 버스정류장과 학교는 그닥 멀지는 않은편입니다.</p> <p>규모는 걸어다니기에는 약간 큰 정도로, 기숙사와 가장 먼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캠퍼스의 분위기는 조용한 편입니다. 다만, 학교내에 카렌이라는 클럽이 위치해 있고, 금요일 밤마다 노래를 틀기 때문에, 기숙사에 사실 예정이면 다소 거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p> <p>또한 도서관은 매우 잘 구성되어 있고, 1층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2층 또한 구석구석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p> <p>또한 공부를 하시거나 팀프로젝트를 해야하는 경우, 노바후셋(Novahuset)이라는 캠퍼스의 입구쪽에 위치한 건물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넓으며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있습니다.</p> <p>또한 운동을 하실 예정이라면, gymneset라는 건물에 위치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6개월 치를 한번에 결제하시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외레브로주는 수도인 스톡홀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도시로, 여러 가게가 몰려있는 시내와 센트럴역 이렇게 두개의 부분이 가장 북적인다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시내와 학교는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자전거를 이용하면 30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현지에서는 대부분 친절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p>

2019-1학기
수업

- Swedish Politics and Policy
 - 스웨덴의 정책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업으로, 짝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은 2분으로, 한 교수님은 이론적인 수업을 주로 하시고 다른 교수님은 발표를 동반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시험은 따로 없고, 기말 대체 레포트를 작성하는 수업이었으며, 통과하기까지 수월했던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 Economics,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 상당히 열심히 참여한 수업이었으나, 시험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통과를 끝까지 하지 못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은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교수님이 상위 단계의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오신 분이셔서 기대치가 높으셨습니다. 또한 평가는 레포트와 시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레포트에는 통계 프로그램을 동반한 전문적인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전에 다루어 보지 않으신 분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의 수정 기회가 주어지며, 수정시에는 평가지에 빼곡히 적힌 내용을 토대로 수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시험은 계산과 이론을 서술하는 것이었는데, 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여도 그 이유까지 정말 상세히, 논리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경제학에 자신이 있더라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Economics, Health Economics
 - 이 또한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고, 재시험 또한 준비하여 응시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한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발음이 일반적인 영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셔서 리스닝에 자신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지와 관련된 경제학을 다루는데, 계산과 통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수월하게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가는 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목 또한 이유를 교수님이 납득할 정도까지 기술하지 않으면 정말 낮은 점수를 주시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범위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Economics, Strategic Decisions
 - 전형적인 수학 강의였으며, 수업 방식은 강의를 기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 수학 이론을 설명하시고, 여러가지 예제를 풀이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본인이

	<p>수학에 자신이 없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문제 유형이 상당히 일률적이므로 시험 통과까지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평가는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8개의 문제 중 4개 이상을 맞추면 되고, 부분점수 또한 후하게 주시는 편이라, 예제를 기본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p>
2020-1학기	<p>코로나 19로 인해서 수업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 큰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der, Power and Poli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비대면수업의 단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제가 급히 중도 귀국하게 된 시기에 수강하였는데, 그룹을 무작위로 나누어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했기 때문에 상당히 버벅이는 경우가 많아 힘들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에 읽어야 할 자료가 매우 많아 (20페이지의 논문 3편을 읽고 요약하기), 준비하기가 어려운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최종 평가는 질문을 주고, 3시간 이내에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통과한 인원이 매우 적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으나,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수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Economics, Globalisation, Wealth and Income dis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 후 일정이 바빠져 완수하지 못한 수업입니다. ● Economics, Industrial Organis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 수업으로, 발표, 시험, 레포트를 모두 요구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발표와 레포트는 본인이 산업 분야를 선택한 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방식인데,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시험도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사전에 연습문제를 풀고, 이를 제출하면 대체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 통과에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준비하면서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남았던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내용이 정말 많고 복잡하며, 본인이 책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며 습득해나가는 느낌의 수업이므로 공부의 양은 정말 많았던 수업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ics, Economics Research and Commun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에 갑자기 비대면 수업으로 바뀐 수업으로써, 코딩 실력을 요구하는 수업이라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통계 프로그램을 쓰는데, STATA라는 프로그램은 본인의 코딩 능력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절대 추천하지 못하는 수업입니다. 게다가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후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포기한 수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본인이 여름에 도착하는지, 겨울에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기간과 프로그램이 달라지게됩니다. 여름에 도착하시면 1달 동안의 긴 기간동안, 다른 수업이 별로 없이 진행하므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기 정말 편하지만, 겨울의 경우 도착과 함께 수업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친해지려는 노력 없이는 친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의 그룹은 사전에 이메일로 페더라는 학생회 느낌의 친구들이 안내를 해주며, 이후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가급적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많이 말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일정이 상당히 강도가 있어서 몸살감기가 다들 걸리므로, 감기약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케아 방문도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여러 필수 용품을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케아는 학교에서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 1시간 반 가량 가야하므로 매우 먼 곳입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제가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는 8월 말로, 당시 기온은 19도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버스에는 에어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때는 이상기후로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을 정도로 포근하였습니다.</p> <p>그러나, 평균적인 날씨는 쌀쌀하여 8월에 잘때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곤 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워지며, 숙소 내에 있는 라디에이터는 구동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기장판 혹은 히터를</p>

	<p>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투는 롱패딩을 추천드리며, 다른 짧은 기장의 외투들은 시내에서 살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수시로 비가 내리고, 종종 우박이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으며, 바람이 밀려날 정도로 심하게 부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p>
<p>안전</p>	<p><i>현지 안전 상황</i> 외레브로 주에 살면서 한번도 위험한 상황은 겪은적이 없었는데, 이는 밤에 다닐 때 혼자서 안 다니고 주로 여러명으로 다녀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거나 다른 프로젝트로 인해서 늦게까지 외부에서 공부하더라도, 학교내 경비원분들께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학생증을 검사해 주시므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p>
<p>숙소</p>	<p><i>학교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 기숙사는 Studentgatan 이라고 하며, 캠퍼스 옆에 붙어있습니다. 시설은 공용 주방을 사용하며, 주방 옆에는 식사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이 있어 거기서 모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기숙사에는 학생 뿐만 아니라 종종 일반인들도 거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학기에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였고, 두번째 학기에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모아 배치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위생상태를 감당 할 수 없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이 위치해 인덕션 전용 조리기구를 사셔야 하며, 찬장의 경우 비위생적인 경우도 간간히 있어, 물건을 놓기 전에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냉장고 또한 공용 냉장고지만, 본인의 구역이 나뉘어 있으므로 방 번호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은 상당히 넓고 깔끔하며, 화장실 또한 깔끔하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박이장, 침대, 매트리스, 책상, 책장, 의자 2개가 구비되어 있으며,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추가로 사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방이 서늘한 편이므로 히터를 추가적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보안의 경우 입구에 자동키를 이용한 보안체제 하나, 그리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공용 복도에 문 하나, 그리고 열쇠를 이용해 들어가는 본인 방 이렇게 보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의 경우, 분실 시</p>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o , 편의점)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스웨덴의 경우, 외식 물가가 매우 비싼 편으로, 저는 마트에서 재료를 구매하여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ICA MAXI, Willis 라는 마트가 있고, 각각 15분,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트 물가는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고, 냉동 피자나 감자튀김의 경우 매우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쌀을 구입하여 직접 밥을 지어먹고, 시내에 있는 아시안마트에서 떡,고추장,고춧가루,라면 등을 구입하여 추가적으로 한식을 조리해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편의점에서 그램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샐러드가 있고, 또한 샌드위치, 핫도그 등을 팔아 출출하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p> <p>학교 내부의 식당은, Pasta la bista라는 이태리음식점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다소 짜긴 하지만 많은 양을 주므로 추천드리며, 점심에 뷔페가 제공되는 식당에서는 약 6천원 정도에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어 좋은 대안이 될 듯합니다.</p> <p>외식의 경우 주로 시내에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5인 기준 9만원 정도, 혹은 이상이 나올 정도로 매우 비싸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 바로 옆에 기숙사가 위치해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으나, 시내에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버스를 타야하므로 한번에 약 3천원 (1시간 지속)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p> <p>버스는 2,3,9번을 주로 이용하여 시내로 갔으며 배차간격은 좀 긴편입니다. Orebro 를 앱스토어에 검색하면 뜨는 파란색 아이콘의 앱으로 교통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면 되며, 신용카드(마스터카드/비자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등 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중앙역에 간 뒤,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SJ라는 어플을 주로 이용하며, 이 또한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50 만원	(수화물추가 - 갈 때, 에미레이트 항공) (올 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가격 급 상승 반영)
Fees	오리엔테이션 비용 :10만원 (각각)	
보험료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 - 무료 현대해상 여행자 보험 - 가격 모름	
숙소	한 학기기준 약 250만원	
식비	한달 약 50만원	외식은 한달에 4번정도
교통비	한달 약 5만원 미만	
책값	0원	학교 도서관에서 대여 / 스캔 가능
기타1	300만원	여행 경비 (교통비/식비 포함)
기타2	약 40만원	자전거, 기타 생활용품 구입
합계	약 2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출국 전에는 우선 학교에서 허가 이메일이 날아오면 최대한 빨리 거주허가서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 사항은 잔고증명서, 학교 입학 허가서, 보험 증빙 (학교에서 제공하므로 학교 허가 이메일 첨부하시면 됩니다)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약 14만원이 접수시 소요됩니다. 방법은 인터넷에 정보가 존재하므로 잘 비교해가며 준비하시고, 비행편의 경우, KISES를 이용해서서 핀에어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학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출국전에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장판과 밥솥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구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하시거나 출국 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면이나 한국음식은 대부분 아시안마트에서 팔긴 하지만, 김,사골 큐브, 국큐브, 각종 시판 소스등은 안 파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한식을 매우 사랑하신다면 대부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옷은 반팔의 경우 입을 일이 거의 없으므로 추천드리지 않고, 편한 옷으로 가져오시되, 많은 옷의 경우 H&M에서도 파므로 룽패딩이나 파티용 원피스 등 구하기 힘들 것 같은 옷들만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옷은 적게 가져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투는 바람막이/가디건/짧은 패딩/롱패딩 정도로 잘 버텼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정말 찾기 힘들므로 (특히나 클렌징 폼 등을 찾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본인의 피부에 맞는 것으로 많이 구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이소에서 부착형 걸이나 (녹여서 붙이는 형태) 거울, 멀티탭 등을 가져오시는 것도 추천드리며 (현지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공유기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불 등을 가져오실 때는 진공 압축팩을 사시면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필기구의 경우, 노트는 괜찮지만, 펜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종류가 적고, 비싸며 별로예요), 수정테이프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충전용 케이블 등도 가격에 비해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없는 편이고,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고장이 잘 나는 편이라면 넉넉히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틴틈히 라이언에어 등 저가항공을 통해 여행을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스웨덴은 출석을 부르는 것이 아닌, 오롯이 자신이 책임을 지는 형태고, 또한 수업 일정이 전공이 아니라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 스웨덴에 가기 전에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포기를 많이 고려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정도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현재 영어 실력이나 성격으로 교환학생 파견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걱정 말고 부딪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현지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더라도, 친해지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에는 꼭 많이 참여하셔서 외국인 친구분도 사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기 전에는 영어실력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였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이 제 영어실력 보다는 친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 덕분에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본인이 직접 논문도 써보는 등의 희귀한 경험도 했을 뿐더러, 틴틈이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던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 사이에는 비행기가 매우 싸므로 꼭, 무리해서라도 다니시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청명하던 3월의 외레브로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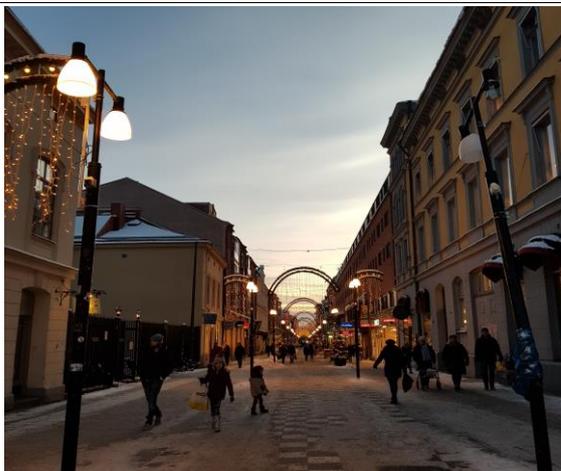
새해 카운트다운 at 외레브로성



한식 파티



스톡홀름에서 열린 K팝 파티



외레브로 시내의 석양



시내에 있는 버거 맛집

